



남원 주천면, 민민의 날 행사 성료

남원시 주천면은 19일 최경식 시장과 김영태 의회 의장, 박희승 국회의원, 시의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3회 주천면민의 날을 일천초등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제24회 흥부골 농악경연대회 대상에 빛나는 주천면 농악단의 터울림으로 막을 열고, 면 평생학습인 보테니컬 수강생 작품 전시와 육포정음악동호회인 공연을 펼치는 등 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만들었다. 이외에도 체육행사(부호, 고리던지기, 제기차기)와 초청가수 공연, 민민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행사장을 찾은 향우들을 대상으로 제중양경철학교 남원 유치 남원누리시만제도와 교향악기부제 등 주요 시정사항을 홍보했다. 또한 주천면 행복 두배 갖자 갖기 부스를 운영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활동도 추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법무보호공단 전북,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22일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은 보호대상자의 사정상단에 필요한 면담기법, 멘토링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상담기술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더불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한영옥 전북지부 협의회장 등 보호위원 51명이 참석하여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황경주 지부장은 "비즈니스 일정 속에서도 전문화교육에 참석해 주신 보호위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교육이 보호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원봉사활동에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오만호 기자



대우컴퓨터, 남원시에 컴퓨터용 모니터 50대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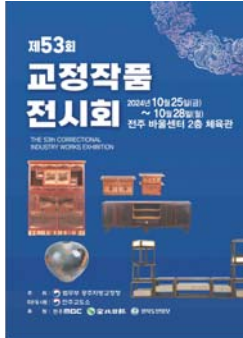
남원시 노인장애인과는 지난 21일 (주)대우컴퓨터에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해 달라며 컴퓨터용 모니터 50대 (1,000만원 상당)를 시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최경식 시장, 대우컴퓨터 배종인 상무, 송재용 전북지사장, 남원특약대리점 김태현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남원시는 2025년 동부노년복지관 운영 활성화에 따른 컴퓨터 교실 및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배종인 상무는 "남원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지역이 되는 데 힘이 되면 좋겠다"라며 후원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서 전도 대성회 후속 세미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내 여러 지역에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열린 '신천지 전도 대성회'가 목회자 200여 명 포함 총 1만 6,000여 명 참석으로 화제를 모은 뒤 후속 교육 요청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후속 세미나는 전북 지역 가운데 지난 19일 군산에서 가장 먼저 열렸다. 이후 28일 전주·익산·정읍·김제·고창·부안에서 열리며, 다음 달 9일에는 남원에서 개최된다. 앞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도마지파(지파장 최중일·야하 신천지 도마지파)는 전도 대성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걷기 행사와 카페라이드, 자전거 트래킹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신천지 도마지파 관계자는 "창세기에서 시작해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반의 역사와 이휘된 실상을 쉽고 명확하게 강연할 예정"이라며 "전북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수용자에 희망과 새 삶을 향한 의지”

제53 교정작품전시회, 25~28일 전주 바울센터에서 개최



그간 서울과 과천에서만 주로 열리던 수용자 교정작품전시회가 처음으로 우리 지역 전주에서 열리게 되었다.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하영훈)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전주 바울센터 2층 체육관에서 전주지방검찰청 형사부서 등 교정관련 유관 기관장과 교정동우회 전주지회 김재영 회장과 회원 등 교정관련 인사 등 많은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 개관식을 연다. 행사는 25~28일 진행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제작된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도 있다. 1962년 덕수궁에서 제1회 전시회를 개최한 이후 제53회를 맞이하는 교정작품전시회는 수형자들이 새 삶을 향한 의지로 틈틈이 땀 흘려 익혀온 기량을 발휘해 제작한 교도작업 작품과 문예 작품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교정위원 문예 작품 등 13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또한, 부대행사로 교정 관련 기념품 증정, 교도관 제복 및 수용자복을 입어보는 보라미 패션체험관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교정행정을 이해하는 등의 색다른 모습을 체험하고 느껴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주교도소 관계자는 밝혔다. 광주지방교정청 하영훈 청장은 "전주 바울센터에서 개최하는 제53회 교정작품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전주시민들에게 교정행정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교정시설과 수용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수용자들의 계속되는 희망과 새 삶을 향한 변화의 의지를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정작품전시회는 그간 서울과 과천에서 주로 행사가 열렸으나 2023년부터 교정청별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전주에서도 개최하게 됐다. 교정작품전시회는 광주지방교정청 내 8개 교정시설에서 제작한 교정작품과 예술작품을 출품받아 그 중 우수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여 처우에 반영하는 등 수용자들의 재능 개발에 기여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작품심사는 교정청 내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우수작품을 선정하여 수형자들의 재능과 취미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등 비록 수용생활을 할지라도 자신의 재능과 취미를 적극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오만호 기자



전은 김진재 부안 지점장,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JB금융그룹 전북은행 부안지점 김진재 지점장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고자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환경부 주관으로 시작한 바이바이 플라스틱(ByeBye Plastic, BBP) 챌린지는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범국민 환경보호 캠페인 김진재 지점장은 한국농어촌공사 김원중 부안지사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부안소방서 소철환 서장을 지목했다. 전북은행 부안지점은 일상 속 물티슈, 플라스틱 빨대 줄이기, 1회용품 대신 다회용품 사용하기 등 일회용 컵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만호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에 난방용품 전달

남원시 도동동(동장 소순자) 관계자는 지난 22일 관내 취약계층 10가구에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난방용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일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해 발굴한 취약계층 10가구에, 난방유 쿠폰과 전기장판을 전달하며 안부도 확인하면서 동시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에 전달한 난방유 쿠폰과 전기장판은 사랑나눔 장터를 통해 판매한 수익금으로 마련된 것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산동면 맞춤형 복지팀 등, 주거환경 개선 나서

남원시 산동면 맞춤형 복지팀과 전주연안은행(대표 윤국춘), 한국 에너지 관리공단은 열악한 주거시설 거주자에 대해 난방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1일 1가구 방문에서 발굴된 평선마을 거주자의 집은 현재까지도 아궁이 방식을 사용하는 주택으로, 화재에 취약한 상태이고 온수 배관이 없어 온수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기본적인 위생 유지에도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에 전주연안은행과 한국 에너지 관리공단에 후원을 의뢰해 1주거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공동산 지역아동센터, 진안군에 장학금 기탁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후원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다. 진안 공동산 지역 아동 센터(센터장 고영미)에서 지난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에 5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기탁식에 참석한 고영미 센터장은 "지난 11일 아이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번 수익금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널리 쓰였으면 하여 장학금 기탁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진안군 아이들이 지역을 빛낼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군민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민 기자

솔티숲서 펼쳐진 생태관광의 향연... 솔티모시축제 성료

정읍시 송죽마을 솔티생태관광방문자센터 일원에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제8회 솔티모시축제가 700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신명난 풍물패 공연으로 시작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행사장에서는 모시떡 만들기, 족욕 체험, 자연물 활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해설과 함께하는 솔티 숲 탐방은 생태관광 마을의 특색을 잘 살려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특히 비빔밥 체험에서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함께 비빔밥을 만들고 식사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틀째 날에는 화창한 가을 햇살 아래 연애인형회 공연, 시경 음악동호회 공연과 주민장기자랑이 펼쳐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송죽마을 주민협의회 김용철 대표는 "마을 주민들이 하나



가 돼 준비한 축제에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모습으로 즐겨 큰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비전대, 장애인 대상 맞춤형 운동법 시행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은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까지 4주간 매주 월요일마다 전주시 평화동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한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전주비전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 4명과 학생 7명이 참여한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신체 활동 부족으로 인한 건강 저하와, 관절 가동 범위 감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참가자들은 세라밴드와 덤벨 등 소도구를 활용한 가정 내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웠다.



김진영 학과장(물리치료학과)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읍성 기자



정읍시 보건소, 장애인 거주시설 방문 봉사활동

정읍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지난 19일 장애인 거주시설 나눔방을 방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의미 있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보건위생과 직원 1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장애인 입소자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나누는 데 초점을 맞췄다. 봉사활동은 입소자들과 칠보산 산책을 비롯해 말벗 해주기, 주변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정서 지원 서비스로 구성됐다. 특히 장애인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산책하며 교감하는 시간을 가져 입소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입소자들은 밝은 표정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애를 겪는 이웃들과 소통하고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남원시보건소는 22일, 전북대병원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해 보건간과 종사자·자율심장중력기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오는 25일에는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수 있는 응급처치법으로 최초목격자가 신속하게 대처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으며, 이번 교육은 응급처치 역량 향상은 물론,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부모의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교육 내용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가이드라인 △심정지 대처법 △나뭇가지와 교육용 심장중력기를 이용한 연명대별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다. 최민자 보건지원과장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번 교육이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